

❖ 낭만에서 리얼로, 톨스토이의 “진실”을 향한 구도의 출발점 『세바스토폴 이야기』

- I. 톨스토이에게 있어 카프카즈, 남쪽
- II. 작품 『세바스토폴 이야기』, 톨스토이 창작의 화두를 제시
- III. 낭만에서 리얼로, ...

I. 톨스토이에게 있어 카프카즈, 남쪽

; 1851년, 23살의 나이로 카프카즈로 도피하듯이 군에 입대, 처음에는 그루지야의 트빌리시에서 복무하고 이후 1854년부터 세바스토폴로 전속되어 그 곳에서 1854~55년, 이른바 <세바스토폴 방어전>에 직접 참가함.

- 1. 젊음의 치기 어린 공간 cf) 오리엔탈리즘류의 ‘내려다’ 보이는 공간
- 2. 평생의 화두가 될 삶과 죽음, 진실과 허위의 대립을 목격하는 의미론적 공간
- 3. 이상적 관념이 아닌, 삶의 토대로써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간

II. 작품 『세바스토폴 이야기』, 톨스토이 창작의 화두를 제시

- 1. 자전적 모티프와 함께 톨스토이 창작의 또 다른 큰 축의 하나로서의 **군사적 모티프**를 시도.
- 2. <1854년 12월, 1855년 5월, 8월의 세바스토폴>이 1855년에 집필, 네크라소프가 편집하던 『동시대인』(Современник) 잡지에 발표됨. (여기에, 몇해 전에 쓴 『유년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 등 소위 자서전적 3부작이 격찬을 받아 발표됨)
- 3. 서술의 형식적 측면에서, 자전적 작품들에 이어 여전히 **형식적 실험의 모색**을 활발히 진행.
- 4. <12월의 이야기>에선 작품을 읽는 독자를 항상 “당신”이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작가가 바로 우리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실제 그 장소를 ‘안내’하는 느낌을 전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의 **판단은 독자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cf) 낭만주의와의 차이점; ‘여과’의 매개, 거리감 ...
- 5. 이를 통해, 소위 주관적인 1인칭 서술, 또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서술의 테두리를 벗어나 리얼리스트틱함, 즉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 6. 또한 서술의 대상에 있어서도 한결 “동반자”적인 모습을 띠. 즉, 크림 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도착하는 낮선 이의 시선에 포착될 수 있는 단계(해안선 -> 야전병원)를 잘 따라 **점차 격전의 중심지(제4 보루)로 이동**하는 방식임. cf). 지연(замедление)

7. 이러한 형식적 측면과 조용해, 의미론적 측면에선 크게 두 가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러시아군의 항전에 대한 **긍정적 묘사**이다. 이는, 그러나 초기의 경향으로 국한지을 수 있다. 『전쟁과 평화』에서 이 부분은 현격히 비중이 떨어진다.
8. 보다 중요한 것으로, 당시 세바스토폴의 전장, 방어전의 모습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즉, 러시아군을 나이브하게 응원하는 순진한 작가의 ‘애국적’ 모습은 종군 리포트를 자처하는 이 글에서 오히려 억제(!)되어 있다.
9. <5월의 이야기>에선 서술의 형식이 바뀐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이른바 전지적 시점의 작가처럼 미주알고주알 친절하게 얘기 다 해준다.
10. 여기서 19세기 러시아 군대의 특이한 현상에, 사실상 군대만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주목하는데 다름아닌 “**귀족**” дворяне(ед. ч. дворянин)이라는 현상이다.
11. 본인 스스로 지울 수 없는 태생적 귀족의 취향으로 당대 잡계급 출신의 문인들과 심한 마찰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라는 단어에 뜯스또이는 일생의 창작 동안 ‘**허위, 가식, 위선**’ 등의 부정적 어휘소들을 결합시킨다.
12. 귀족의 “고결한 의무”로 참전한 군인의 신분으로 그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명심, 헛된 명예욕, 보여주기식의 용기** 그리고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허위, 가식, 기만 등이다.
13. “진실”에 맞서는 이런 허위, 가식, 기만을 철저히 폭로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뜯스또이는 초기부터 이른바 **사건, 사물을 처음 보는 듯한 시선으로 표현하며 그것의 본질을 다 시금 우리가 인지하도록 했다.** (cf. “낫설게하기”. ex. pp.146-7, 뿌라스꾸힌의 죽음의 장면 묘사)
14. 한편, 프랑스군의 야간기습이 발생하자 부관 깔루긴은 능선 제4보루까지 올라가는 등 전장을 누비고 다니다. 그의 눈을 통해 격전의 현상이 ‘중계’된다.
성숙한 뜯스또이, 특히 『전쟁과 평화』에서도 관찰되는 기법(cf) 제1권, 1805년 아우스터틀리츠에서의 첫 전투에서의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역할과 비교!)으로서, 그는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을 전지적 관점으로 묘사,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비중있는 등장인물이 직접 ‘필드’에서 보게끔하고 그의 말과 눈을 통해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15. 한편, 뜯스또이의 군사소설에서 전쟁의 이유, 적군과 맞서는 아군의 숭고한 이념적, 민족적 형이상학은 **없다.** 쉽게 말해, 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는 알려지지도 않고 사실 그다지 뜯스또이의 관심을 끌지도 않는다. 또한 외적과 싸우는 러시아군을 동정, 미화하지도 **않는다.** 죽은 적의 시체에서 군화를 벗겨내는 러시아 병사의 모습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16. “**진실**”이란 무엇인가?
본원적 선도 악도, 선한 문학적 주인공도 악한 문학적 주인공도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한 전투를 치렀기에 휴전을 위해 총과 칼을 내려놓고선 농담과 상대방에 대한 환심을 끌어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치열한 현장,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그 곳, 그게 바로 진실이고 우리 삶의 바탕이 아닐까...?
17. ‘전쟁’은 삶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의 가장 진실된 표현이다. 뜯스또이는 전쟁광이거나 마초적 본능의 파괴적 남성성의 화신이 아니다. 그가 군사적 모티프와 전쟁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전장이 논리와 믿음 등의 인간의 어떤 고귀한, 또는 고귀해 보이는 (!)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생과 사가 일순간에 갈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상층의 미지의 질서, 힘, 환언하자면 그에게 ‘진리’Veritas로 인식되는 것을 파악하려는 끊임없는 지적인 추구의 결과인 것이다. 그 진리를, 뜰스또이는, 신이라 인정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 이해되는 신은 그렇지 않음에 결국 평생 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III. 낭만에서 리얼로, ...

➤ ‘꿈’의 좌절

- 1812년 정신적 조국이었던 프랑스와의 ‘조국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취된 이상주의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의 1825년의 퍼포먼스[12월 당원의 반란]. 그러나 실패로 돌아감.
- 자유의 정신과 인간의 개성에 대한 믿음, 민족적 특수성에 대한 예찬 등으로 가득한 낭만주의의 정서는 이후 절망에 부딪힘.
-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상향을 꿈꾸며 노래하던 낭만주의는 결국 그 너머 피안(彼岸)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서서히 고통스런 주변 ‘현실’의 세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됨 ... cf) 러시아 시인(낭만주의)의 특성 - 조국과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가득함.
- > 대중에게 환멸과 봉건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 세계를 제시할 의무감을 다름아닌 ‘시인’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아직까지도 ...

➤ 우리 슬라브? 그러나, 서구여, 다시 한번?

- 1825년의 반란 실패 뒤, 러시아의 지식인 계층은 숙제를 받아들게 됨; 과연 러시아는 인류[서구] 문명 발전이 보여준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
- 해답1: 그렇다. 그리고 따라가야만 한다! <- 소위 “서구주의자”들
포트르 1세 이후의 서구화를 계속 진행, 완성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서유럽 문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 기여해야 한다.
- 해답2: 아니, 유럽 모방은 이제 그만. 우리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자! <- 이른바 “슬라브주의자”들.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고, 동방도 아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이다. 즉, 서유럽의 로마가톨릭과 다른, 동방정교(러시아정교)의 순수성을 되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중(농민)**과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러시아의 모습이 있다.
- **러시아 지식인 계층[인텔리겐치야; интеллигенция(the intellectuals)]**의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 인텔리겐치야는 대단히 러시아적인 현상으로서, 교양있고 학식있는 지식인이란 ‘아는’ 사람이란 일반적인 뜻을 넘어, 사회적 성격을 지닌 사상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사회와 현실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하는**’ **지성인**이란 의미를 지닌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 ‘리얼’의 세계로

- 비루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고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기 그지 없는 낭만이 가득했던 문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함. ‘현실’에 눈뜨기 시작.
- 고골의 <외투(1842)>라는 단편소설 중에, “게다가 무슨 재주인지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창문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의 모자에는 항상 수박이나 꿀참외 껍질과 같은 잡동사니들이 얹혀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아 수프와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를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음식에 파리가 빠졌든 무슨 이상한 벌레가 잘못 빠졌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먹어치웠다”, “작업 중인 재봉사들이 늘 그렇듯이 그도 맨발이었다. 이미 아까까 아까까예비치의 눈에 익은 커다란 그의 발가락과,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고 딱딱한 발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라는 등의 구절은, ...
- 꿈에서 깨어나는 초기에는 약간의 격렬한 반작용처럼 이와 같은 극단적인 묘사를 통하는 ‘자연주의’라는 수법을 통해 리얼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의 현재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통한 문학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 꿈과 사랑을 노래하던 것에서, 현실과 오늘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 또한 자기 자신만의 관념(감정), 자신의 관념 속에서 축조된 세계의 지배자로서 ‘자아’라는 유아병을 깨고, ==> 군중 속에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 즉, 내면화되어 있던 ‘갈등’이라는 것을 외재화시켜 낼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시[서정(抒情)]에서 소설[서사(敘事)]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 리얼리즘 문학

- 일단, 문학으로 좁혀 말해도, 모든 문학은 리얼리즘의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신들의 상상이 더없이 리얼하다고 느꼈다.
- 굳이 ‘사실주의(寫實主義)’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선생이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 ?
- 사실주의에선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를 말해야만 한다는 뜻이 강하게 묻어나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부러 리얼real이라는 말을 쓴다.
- 영화 <내사랑 내곁에>에서 김명민의 루게릭병 환자의 연기를 보면서 우리는 “와우, 정말 리얼하게 연기한다”라고 말한다. 루게릭병 환자 실제로 진짜로 보신 분 계세요? ...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흡사, 마치, 실제로, 정말 그럴것 같이, 김명민이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 즉, 리얼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일, 상황, 말, 표현, 성격 등의 현실을 더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문학은 역사와 달리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강조점입니다.
- 정리하면, 리얼리즘Realism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fact가 아니라 **실체reality**이며, 정확성accuracy이 아니라 **개연성(蓋然性)verisimilitude**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너무나 리얼했기에,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문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작품에서 말해지는 것이 마치, 흡사, 정말로, 진짜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벌어졌었던 일이라고 철썩같이 믿어버리는 것이다.

- 뒤집어 말하면, 그때 그 작가들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김명민처럼 우리를 깜짝같이 한순간 미혹시켰으니.
- 그러한 복잡다단한 19세기 후반부 러시아의 현실을 담아낸 러시아문학은 또 다른 러시아적 특수성과 결합하면서 대단히 이상해지는데,
- 러시아에서 문학은 온갖 사회, 정치, 철학, 사상, 문화, 예술, 종교, 이념 등의 **발언의 장(場)**이었습니다. 정부당국의 사전 검열 존재했지만, 어쨌건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된 ‘출구’였습니다.
- 그랬기 때문에 19세기 러시아문학은 일반 우리들에게 심히 딱딱하고, 어렵고, 말싸움으로 일관하고, 이념 대립으로 먹고 살며 날을 지새고, 지루하고, 장황해 보입니다.
- 낭만주의 시대 시인의 ‘소명의식’에 한층 더해, 리얼리즘 시기 작가는 사상가요, 사회의 감시자이자, 철학자이며, 이념가로서 시대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른바 독자들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fr: engagement)의 표상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1. 톨스토이의 낭만주의에 대한 선언(Manifesto)

- = 낭만에서 리얼로의 전환은, 카프카즈(+ 크림)라는 배경이 되는 공간성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곳에서 빚어지는 **세계관의 변전**이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이상, 유토피아, 환상, 염원 등이 쓰디쓴 현실로 내려앉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곳을 둘러보도록 한 것은, **폐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침체와 맞물림**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 톨스토이에게 있어,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에 대한 생경한 ‘관찰’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 물론, 이렇게 다름아닌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론 죽음을 운명에 대한 도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는 두렵기에 애써 가볍게 생각하려 한 낭만주의와 낭만주의자들에 대한, 반낭만주의의 **낭만주의 ‘다시보기’(=>폐기)**의 주장이라고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역사의 공간으로서 카프카즈를 무대로 하는 러시아

- = 카프카즈 공간에 대한 1) 제국 러시아(Россий ская Империя), 2) 소비에트, 3) 연방 러시아(Россий ская Федерация)의 시선과 태도 vs 그곳 카프카즈인들의 정복자(!) 러시아에 대한 반응, **자신들의 욕구**
- ‘욕망’의 교차로 ; 카프카즈, 크림반도, 흑해, ...

3. 문학과 공간/시간

- = ‘공간’(/시간)과 문학과 연관성, ... cf) 시공간의 결집체, 호로노토프(хронотоп; chronotop)

➤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과 톨스토이(1828-1910)

-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두 거장, 그 이름만으로도
- 관념(идея)의 문학, 도스토예프스키(Фе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깊이. 산.
작품: <가난한 사람들>, <지하 생활자의 수기>,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육체(плоть)의 문학,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넓이. 바다.
작품: <어린 시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홀스토메르>
- 러시아 문학의 특수성; “영국에 과학이 있고, 독일에 철학이 있으며, 프랑스에 미술이 있고, 이탈리아에 음악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문학이 있다.”
- 18세기 계몽의 시대 서구화를 통해 일치의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 드라마 쓰는 학습, 율격을 지켜야 하는 시를 짓는 ‘문학’이란 것을 습득하자마자, 그 학습교재와 정전(正典)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렸다.